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7호](2014.3)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존상 참배, 3월 29일 오프닝 세레모니 개최

개조·영조님과 받고대수(拔苦代受)의 원천인 교도인·신도인님의 존상 맞이 오프닝 세레모니가 3월 29일 서울포교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존상 참배는 전세계의 수많은 현유(現幽) 제령의 구제를 위한 순교(巡敎)의 일환으로 종정스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진여원의 섭수와 제섭을 위한 귀한 행사이다.



<싱가포르 존상참배 행사>

행사는 3월 29/30일 양일 오프닝 세레모니를 기점으로 4월 20일 클로징 세레모니로 마무리된다. 21일간 열리는 행사를 위해 서울포교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픈하며, 교도·비교도를 불문하고 누구나 방문해도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존상맞이 준비 프로젝트팀'이 활발히 활동하여 지난 2월 11일 부회대표들을 대상으로 그간 기획한 내용의 최종보고가 있었고, 2월 16일 월례회에서도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최종보고에서는 준비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기획되었음이 확인되었고, 3월 중순까지 마지막 준비를 위한 실천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존상참배 의미 전달 위한 기획물도 다양

진여원의 기반인 네 분의 존상참배 의미가 잘 전달되어 참배자 모두의 가슴에 부처의 마음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다채로운 기획물이 준비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1층은 존상 안치 및 결연, 2층은 사진전시·석존에서 종정스님으로 내려오는 전등법맥의 흐름, 존상의 세계 순교 사진전, 개조·영조의 인생역정과 성원(聖願), 동영상 배칭, 3층은 다과 및 담소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각층에는 상시 봉사자가 대기하여 즉석 질문에 대응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단체 및 개인참배 교도들을 위해 사무국은 길안내, 청소, 정사단장, 음식마련 등 빈틈없는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존상을 보전에 안치하는 단상, 존상과 연결되는 오색선(황색, 청색, 흰색, 적색, 검정색)의 부처님 손 위에 놓여지는 오고령(五鈷鈴)과 결연(結緣)하는 방법 등에도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아울러 홍보물 및 초청장 작성, 현수막 제작 등 대내외 홍보준비가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존상은 이미 지구의 북반구를 순회한 후 현재 남반구의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로 공수될 예정이다. 원래 총본부(오야소노) 신초지에 모여져 있는 존상을 한국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진여원의 총본부가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존상 참배에 대한 교도들의 각오도 뜨거워

존상참배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교도들의 각오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의 김분님 교도는 존상참배를 향한 각오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지방에 있어 귀원기회가 갖지 못한 상태인데, 법무모께서 한국으로 오신다니 정신이 확 깨는 느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대화회 정진에 보다 투철한 각오를 새기겠습니다”.

창원의 이흥철 교도는 “영조·교도인·신도인님의 존상은 개조께서 오랜기간 호마를 올려 검게 변했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받고대수를 해주셨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를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조께서 호마를 직접 올려주신 그 때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부산의 이헌순 교도는 “제 손을 오색선으로 연결된 존상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수년전 청년을 졸업한 서울 김희윤 교도는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귀한 기회를 순타존자 정도는 아니지만, 10명을 데리고 함께 참배할 계획입니다”며, 적극적인 교화에 나설 생각임을 토로했다.

서울포교소, 법요와 점심수행 보전을 분리·운영

서울포교소에서는 법요와 점심수행이 같은 보전에서 해왔으나, 2월부터 법요는 1층, 점심수행은 2층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제주 신포교소 3월 16일 개소식

기존의 제주포교소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치도 불편하여 신제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신포교소 개소식은 3월 16일 11시에 행해질 예정이다. 개소식 행사에는 총본부의 국제부장이 도사를 맡을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각 지구별 사무국으로 사전 연락을 접수받고 있다.

[체험담] 실천없는 정진은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부처님을 가슴에 새기는 중요함을 철저히 깨닫고 정진 중인 서울 김연희 교도

어머니께서 생사기로에 서게 되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입신했습니다. 어머니 일로 상담접시를 받는 중, 곧 돌아가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얼마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을 순수하게 믿고, 무조건 따르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던 2006년 12월 대승을 받았습니다. 평소 종교가 필요없다는 남편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2007년부터는 가족 모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따랐으나, 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고 저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환희수행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원망스러웠고, 기운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직장 일 감소로 재택시간이 늘어나자, 딸에게는 아빠보다 엄마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영언이 생각나,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자 그렇게도 싫었던 물들인 머리와 짧은 교복의 딸이 발랄하고 귀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딸 역시 반항심과 말투가 수그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넘지 못할 산은 없다’

환희에자에 참좌한 초기에는 진정한 실천을 못했으나, 총본부와 응현원을 갔다오면 심신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개월마다 응현원 에자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중 2가 된 2010년부터 힘든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모에 관심을 가진 딸이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교복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말투는 통명스럽고 욕하는 모습도 찾아졌습니다. 저는 학생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으나, 딸은 반항했습니다. ‘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상구보리를 받았으나, 막상 딸의 행동을 보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에서는 ‘마음대로 안된다고 증심을 잃으면 안됩니다.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라는 영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성실하고 타인을 잘 배려하는 남편에게 왜 저에게는 배려하지 않는가 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본 에자에 참좌하기 위한 마음가짐에서 ‘딸이 사춘기여서 반항하고 있지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지금에 감사해야 한다....아침에 눈뜨면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의 웃는 얼굴로 머리를 숙이라’는 영언이었습니다.

는 영조의 말씀을 새기며 노력하자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내년 영조 탄생 100년을 맞이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고 에자에 참좌하기로 했습니다. 참좌에 앞서 진정한 실천도 결심하고, 15개 작선(作善)을 노트에도 적었습니다. 에자에서는 ‘영조의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정진바랍니다’는 영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자 후 영언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슴에 새기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다음날 기회가 한번 더 있었는데, 저는 상승보다는 영조를 가슴에 단단히 새기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고, 조상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능자를 목표로 한국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 과정입니다. 영조를 가슴에 새기고, 어떤 어려움도 부동의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는 기도를 읊기는 중 감사하게 환희를 상승받았습니다. 상승 후에는 신기하게도 딸이 학생답지 않은 차림을 하지 않기로 먼저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의 체험을 통해 실천없는 정진은 아무런 힘을 받을 수 없으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파동 칼럼> 여성 17훈 과 금강경(김창근)

서울·부산 청년 27
명, 2014년 자타키
(폭포) 수행 실시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대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식사시간이 되어 가사를 입고 발우를 지니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셔서 걸식을 하시고 재차 걸식을 마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식사를 마치신 후 가사와 발우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올라 앉으셨다”.

금강경의 대의는 사물이나 사상에 붙여진 이름에 대한 집착을 떠나 그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을 갖추기 위해 강설하는 불교 강원의 핵심 교과서이다. 가끔 절에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금강경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금강경의 첫 대목이 왜 부처님께서 걸식하시는 광경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정신 똑 바로 차리고 읽지 않으면 금강경을 수백 번 읽고 쓴들 금강경 본래의 뜻으로 부터는 멀어진다.

생각해 보자!

부처님은 최상존이신데... 부처님과 함께한 1,250 대비구는 도대체 뭘 하고 부처님이 손수 발우를 들고 집집마다 걸식을 하시도록 보고만 있었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한다. 불교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최초로 던져진 화두와 같은 대목이다. 물론 부처님께서 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하시려고 직접 걸식을 하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머리로만 하는 생각일 뿐이다.

부처님이 왜 직접 걸식행렬에 동참하셨을까?

불교 수행은 구도의 길이 머리가 아닌 발로, 생각이 아닌 몸으로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셨다.

청년부는 2014년도 자타키수행을 실시했다. 입교당시 개조·영조께서 타카오산에서 심야에 폭포수행하신 발자취를 따라, 미래의 진여원을 짚어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및 부산 포교소에서 3월 1일 및 3월 2일 각각 개최되었다. 서울에서는 14명, 부산에서는 13명이 참가하여 백팔배 수행을 하였다. 이에 앞서 2월 8일~9일 총본부에서 행해진 전세계 청년부 자타키수행에는 한국에서 3명의 청년대표가 참가한 바 있다.

좀 더 형이상학적인 표현은 아마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에게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무리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절을 몇 천 번 하더라도 경전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실천으로 행하지 않으면 경전의 본질로부터 멀어진다. 마치 수박 속을 먹지 않고 껍만 핥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다. 신노엔사를 보고 들으면서 영조의 실천행을 접하게 된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감격할 때 영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

금강경의 첫 대목이 그렇고 영조의 여성 17훈이 그렇다.

머리 아프게 경전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또 무릎 아프게 꿇어 앉아 기도하면서 고통받을 필요도 없다. 천당 가고 극락세계 가고 상락아정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바와 같이 경전의 내용을 몸으로 직접 행하거나, 시대가 다르다고 느끼면 영조의 17훈만 제대로 실천해도 이미 도를 얻은 경지에 오른다. 의처에 오기 전에 하던 행동을 의처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서는 의처에 오기전과 똑 같은 행동을 한다면 차비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 꼴이 된다. 차라리 하던 대로 하고 사는 게 더 인간적일지 모른다.

오색의 금강선을 통해 부처님과 결연하는 귀한 만남의 날!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
대반열반경에 깃들여있는
신통영묘(神通靈妙)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재가불자 모두가
실천을 통해 실현해가는
수행의 도량, 진여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2,500년간 묻혀있던 열반경의 진수를 밝혀
석존의 상주 범신 가르침을
현대인에게 전달,
인종, 민족, 국경, 종교를 넘어
세계인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개조(開祖) 이토우 신조, 영조(靈祖) 이토우 도모지 스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의 수백만 교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깨우쳐 주신
개조·영조의 존상을 모시고
진여원 고유의 명상(접심수행)과 법요가 행해집니다.

2014. 3. 29~4.20. 진여원 서울포교소(714-0269)

모시는 말

개조 신조(真乘) 스님은 당나라 청룡사(靑龍寺)의 혜과대사(惠果大師)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일본 공해대사(空海大師)가 개창한 진언밀교(眞言密敎)의 혈맥을 이은 교토(京都) 다이고사(醍醐寺)에서 득도수계를 하신 후, 금강계·태장계(金剛界·胎藏界) 다라니 수행을 모두 법필(法畢) 하시고, 최고의 승계인 대승정(大僧正, 아사리)이 되셨습니다.

군국주의가 극도의 몸부림을 치던 세계 제2차 대전 직전
기존 세대에 영합하는 기성 종단에서 과감하게 탈피,
석존 가르침의 원점으로 돌아가
재가불자(在家佛者) 중심의 중생제도를 위해
종래의 험한 고행과, 경전위주의 수행에서 탈피,
많은 대중의 불성(佛性)과 영성(靈性) 개발을 동시에
그리고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문 전래의 영능을 이으신 영조(靈祖)와 혼연일치로
부처님과 만나는 ‘접심수행’(接心修行)과
영성을 높이는 ‘상승회좌’(相承會座) 수행을 개척,
불성과 영성을 수행자 스스로 연마할 수 있는 가르침을 확립,
재가불자 스스로 자신을 장악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연마,
상락아정(常樂我淨) 속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원만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귀한 법요 및 접심수행의 도량
진여원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